

##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극복 대응을 위한 Delphi 분석

장철영\*, 박동균\*\*, 김광주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른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각 대학별 노력은 물론 행정학회, 행정학 교수나 학자들의 역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의 정확한 문제인식을 통해서 무엇이 각 학교 별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학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 일반인식의 제고와 행정학 전공자들의 취업활로 개척, 관련된 제도적·정책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이 경험하고 있는 이론적 정체성과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회의는 다분히 현대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거버넌스 상의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 공공의 개념이 모호해지고, 기존의 정부기구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노정되며, 행정업무의 수행방식이 변모하고 있다. 행정학과 역시 다양한 연구소재와 대상, 초점을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 융합, 인재지역활달제

### 1. 서론

21세기는 창의력이 주도하는 지식기반 사회이며,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적 원동력으로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국가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과 질 관리는 세계 어느 나라나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정용덕, 2001: 78;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3: 2).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인력양성이라는 근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대학을 선호하는 학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상을 고수하지 못하고 이러한 경쟁력 상실 속에 그 위기를 맡고 있는 것일까?

최근 뜨겁게 불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사안이 바로 본 연구의 그 단초를 제공했다할 수 있다. 지방대학의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현상은 근본적으로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취업난

\* 주저자, \*\* 교신저자.

의 진통으로 인한 기형적 현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과 대대적 재편을 통해 학교 내지 학과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지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대학에 있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우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행정학과의 79.6%가 인접 사회과학과 제도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는 학부제 구조로 존립하고 있음으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 측면에서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물론, 학부제 하에서 학과의 경쟁력은 인접 학문으로 어떤 분과학문과 모집단위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학과는 대부분 경영학, 통상학, 법학과 같은 사회적 대응성이 높은 분과와의 학부제 단위를 구성하고 있고, 이들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구조조정의 집중적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그 가운데 서 있는 행정학과도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행정학과, 특히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관리 및 평가준거에 대한 연구는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행정학과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 관련 집단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학과의 위기관리 및 평가 준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학과 교수집단의 요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 급선무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실태 및 문제점을 우선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둘째, 지방대학 행정학과가 지니고 있는 위기변수가 무엇인지 그 유용성과 수용성 측면에서 탐색해 볼 것이다. 이를 보다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현황분석과 아울러 전문가 면담을 통해 그 시안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뒤 평가항목의 내용 타당도와 위기극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또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분석기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델파이 조사는 여러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교환하는 방식이며, 이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대안에 대한 탐색이 어려울 때,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주관적·직관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노승용, 2006: 54). 즉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환류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가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한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극복 대응방안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하고자 한다.

## II. 지방대학 행정학과 위기에 관한 논의

## 1. 지방대학의 위기상황

오늘날 지방대학에 다양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가져온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체제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무관하지 않는데, 우선, 현재 지방대학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수험생의 지방대학 기피로 인한 학생확보의 어려움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지방대학 스스로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 수도권 선호 의식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존재한다. 그 결과 대학의 자구 노력만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학생 확보의 어려움은 수험생 수의 감소에도 기인하지만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유출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서울소재 대학 입학자의 51.8%가 지방 고교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http://news.chosun.com> 2011. 08. 13자 기사). 재학생 충원율에 있어서도 전국 193개 4년제 일반대학 가운데 재학생 충원율이 90%에 못 미치는 대학이 모두 37곳인데, 이 가운데 24곳(64.9%)이 지방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2011. 08. 24).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대학신설이 자율화된 후 많은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신설되어,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되자, 정부는 난립된 대학을 다시 줄이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 수준이라는 8개 평가지표를 고려하여 17개(제한대출그룹 13개 대학, 최소대출그룹 4개 대학) 대학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하였고, 43개(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포함, 4년제 대학 28개교, 전문대 15개교) 대학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확정된 바 있다. 이는 소위 부실대학, 퇴출대상 대학이라는 멍에를 남겨 난립된 대학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교육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즉, 국내 대학졸업생이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지식 습득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저조하여,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재교육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해외유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이만희, 2003: 57). 특히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된 지방대학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외에도 각종 고시를 비롯하여 정부기관 및 대기업에 지방대 출신들의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 2. 행정학과의 실태 및 문제점

### 1) 이론중심 행정학 교육관행

하나의 학문이 태동, 발전, 변모해 가는 과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다. 즉, 지적(intellectual), 제도적(institutional), 기능적(functional), 지식사회학적(knowledge of theory)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Harvey, 2000: 5). 이는 한국 행정학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변화 과정 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정용덕, 2001: 27). 행정학은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정체성 위기에 휩싸여 왔다. 1960년대 이후 벌어진 정체성 위기론은 주로 미국적 맥락에서 이론적 증거를 위한 보편적 고민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는 위기론은 유용성에 대한 반성이라 할 수 있다(이병량, 2010: 1, 윤건수, 2011: 7-8). 즉, 미국의 행정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나머지 한국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학문적 풍토에 대한 자각과 다른 한편으로 한국적 현실에 적합하지 못한 문제해결, 한국적 특성 발견 소홀, 학부중심의 교육과정, 현실과 괴리된 이론 중심의 행정학 교육, 행정이론의 현장 적실성 부족, 능률성 위주의 행정이념, 학자와 실무자의 교류부족 그리고 행정학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학을 교육받는 학생들의 경쟁력 저하와 이에 따른 행정학과의 경쟁력 상실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김홍희, 2011: 238).

학과 설립당시 행정학과로 개설된 학교도 학생 유치상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이유로 행정학과에서 다소 빗겨간 느낌마저 드는 유사 학과로의 명칭 변경(경찰행정, 공공행정학부, 보건행정, 자치행정, 소방방재행정, 사회복지행정, 병원의료행정, 비서행정, 국제행정, 도시행정, 건축 소방행정, 환경행정, 지역 및 복지행정, 해양행정 등)이 나타나고 있다(이병량, 2010: 178; 박종관·김상묵, 2009: 12-13; 유희숙, 2005: 10; 송재복, 2005: 6-7).

## 2) 취업률의 저하

행정학과가 개설된 76개 대학교의 행정학과 졸업생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37.56%로 나타나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8대 지표중 하나인 취업률 기준 4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충원에 있어서도 충원율 100%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17개교(22.36%)로 나타나 예전의 명성이 다소 희석된 것으로 평가된다.

2010년 전국 대학 취업률 20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률이 76%로 나타났는데 비해 행정학과 취업률 상위 20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5.7%로 나타나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계열의 학과들과 행정학과의 취업률을 단순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학과 간 격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영·경제·경영정보학과들이 평균 7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행정학과의 취업률이 낮은 것이다(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http://www.academyinfo.go.kr)).

## 3) 공무원시험에서 행정학의 비중저하

행정학 교육의 가장 크고, 현실적인 위기는 현재의 행정학이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또 낮아져오고 있는 현실과 이런 추세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확연히 보이지 않는 점에서 기인되기도 한다(박준하, 2010: 523).

정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 요건을 분석해 보면, 각 시험들과 관련 학문분야와의 연계성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시험에서 지향하는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 행정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 내에서 행정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있는 직렬(류)은 모두 16개이다. 이 중에서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직렬(류)은 4개뿐이며, 선택과목으로 행정학을 요구하는 경우는 단지 6개 직렬(류)뿐이다. 상대적으로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직렬(류)은 전체 16개 직렬(류)중 8개이고, 경제학은 10개이다. 7급 공채시험의 경우는 전체 채용 직렬(류) 9개 중에서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직렬(류)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뿐이며,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은 모든 직렬(류)의 필수과목이고, 행정법은 8개, 경제학은 3개의 직렬(류)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전체 채용 직렬(류) 11개 중에서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는 직렬(류)은 일반행정 뿐이다.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모든 직렬(류)의 필수과목이며, 행정법은 3개 직렬(류)의 필수과목이다.

각 대학의 행정학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은 오늘날 다양하고 복합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할 행정가를 배출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직급별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소양은 대입 수능 종류의 소양이며, 경직적인 지식뿐이다. 즉, 이는 현재의 공무원 임용 시험제도가 행정가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와 엄정한 결과중심의 행정이라는 현대가 요청하는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행정인을 선발하는데 다소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4) 지방대학 행정학과 충원율의 저하

행정학과 의 사회적 대응성은 일단 대학 내에서 신입생의 모집경쟁력을 측정함으로써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6개 대학 가운데 신입생 모집 시 미달되는 경우가 17개 대학, 추가모집(38개 대학)을 통해 정원을 채우는 대학이 21개 대학, 학부제 이후 당초의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하는 경우가 20개 대학뿐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달’에 해당되는 대학이 17개 대학으로 나타나 22.3%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율의 대학에서 행정학과는 신입생의 충원에 취약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표 1&gt; 행정학과 존립형태와 경쟁력

구분	소속		모집정원 총원		
	학과	학부	미달	추가모집	초과
서울	6	16	5	14	3
인천/경기	4	9	2	9	2
강원	2	3	1	3	1
충청	2	17	6	7	5
전라남북/광주	1	15	5	7	4
대구/경북	3	8	1	6	4
부산/경남	2	9	2	5	4
제주	0	1	0	1	0

※ 자료: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변화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행정학과에 타 학과를 개설하여 생존하는 형태이다. 주로 행정학과에 경찰행정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하여 병존해가는 형태인데, 이 유형은 행정학과와 함께 최근 인기 있는 학과를 설치하여 행정학전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학자가 다른 교과목의 강의를 커버하면서 행정학 강의도 하게 된다. 하나의 공통된 교과목을 가지고 행정학과 함께 새로이 개설된 학과의 교과목 강의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통합학부제로 유지하는 형태이다. 즉, 행정학 전공이 타 전공분야와 통합되어 공존, 운영되는 형태이다. 예컨대, 법, 경찰 행정학부체제에서 행정학 전공을 유지하는 형태이다. 행정학 전공이 다른 인기 있는 학과와 병존함으로써 전공에 따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전체 행정학 전공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가운데 조사에 참여한 지방 4년제 대학교는 총 76개로(서울지역 제외), 이 가운데 행정학 전공은 62개 대학에서 학부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14개 대학에서만 학과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압도적인 비율이라 할 수 있는 81.5%의 대학이 학부제 형태로 편제되어 행정학은 여타 학문과 모집과정에서 신입생을 두고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는 행정학과의 존립양태에서 학과보다 학부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지역적 편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성찰적 자세로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써 행정학이 이 사회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되짚어본다는 것은 행정학자들의 기본적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행정학과 위기 원인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위기를 촉진하는 원인변수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쟁력 저하는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하는가, 이의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발전방향의 모호성

최근의 행정학이 보여주는 지적 호기심이 다소 약화되고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문제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자면 최근의 행정학에 대한 수요의 위기는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저흥미, 지식에 대한 회피현상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행정학을 흥미 없는 지식으로 단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행정학은 관리과정 위주의 개념적 도구체계로 기능하여 왔고, 행정학의 연구와 교육 편제 역시 산업사회 발전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다(염재호 · 이종순, 2001: 16). 이와 관련하여 백완기(1978)는 도입기에 행정학의 기술적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과학성이 무시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한국행정학이 1970년 미국 행정학의 학문적 토대인 실천성 · 기술성 · 처방성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과학성 · 이론성이 빈약해졌다고 한다. 다시 말해,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처방성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행정학의 위치마저 격하시켰다고 보고, 행정학은 내용 없는 학문, 이론이 빈약한 학문, 매뉴얼적 성격을 띤 학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학이 실천성 · 처방성 마저 발휘하지 못하는 채신없는 학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과학성의 추구를 주장된다는 것이다(백완기, 1978: 75-76).

### 2) 행정현실과의 괴리

행정학에서 다루는 학문적 이론의 논의가 실제적 사회공헌도와 의 문제에서 그 일치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행정학과에서 다루는 교과과정이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측면에서 다소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행정학 교육의 주류는 실무형 교육이라기보다 아직도 실용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다.<sup>1)</sup> 이 결과 행정학에 대한 비유용성의 정도는 아직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방대학 행정학과 전공자들의 취업 및 진로모색 관점에서 행정학과 의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학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과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외면당하기 쉽다. 따라서 지방대학 행정학과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성 있는 행정학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3) 행정수요와 괴리된 사학의 행정학과 남설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에 대한 괴리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행정학과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높지

1) 김명환(2011: 13-14)은 이의 원인을 문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연구대상의 선택과 Dewey(1954)가 주장하는 실용주의 문제해결에 대한 정태적, 획일적인 접근방법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않다는 점, 특히 지방대학에서의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이 목격된다. 행정학과와 취업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공무원 임용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행정학과 지방생의 경우, 또는 학부 내에서 행정학을 복수 전공하는 학생의 경우 공직진출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으며, 공무원으로의 입직이 행정학 선택의 배경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행정학과도 공무원 임용고시를 기본적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비수도권 지역의 행정학과 일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 시 공직 진출 가능성을 유인책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공직진출자 비율이 낮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대 행정학과와 비선호를 조장하는 현상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 4) 공무원 양성과의 괴리

행정학은 공무원 양성에 과연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아직도 행정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이 비행정학 전공자들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7급 공무원 합격자도 행정학 이외의 전공자 비율이 더 높고, 주지된 사실처럼 각급 공무원시험에서 행정학 비중이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5급 공무원공채의 1차 시험인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무원전공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또한 7급이나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행정학은 여타의 과목과 비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많은 수험생들이나 합격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가운데 행정학은 대학에서의 기초적인 이론 교육이 가장 덜 필요로 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경험이 수험준비에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제는 행정학 지식 이외에도 해당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미국에서처럼 학부에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졸업생이 석사과정에서 행정학을 훈련받는 경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한국에서는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학부과정에 행정학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행정학의 교과과정이 보다 획기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공무원임용제도가 행정학과 졸업생을 설령 우대한다 하더라도 행정학의 유용성에 대한 의식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 5) 낙후한 교수법

마지막으로 전통적 교수법에의 집착을 들 수 있다. 지식공급이 교수들만이 독점적 점유물이었던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새롭고 다양한 정보가 열려 있고, 널려 있어 교수 강의가 상대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제공, 사이버대학, 위성을 통한 원격교육 등 새로운 형태의 대학들이 출현하고 있어 전통적 대학체제 즉, 교육내용, 방법은 물론 교육주체인 교수들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III. 델파이 분석 및 결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지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대학 행정학과 의 위기는 그 자체에서 기인되는 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대학 외부의 요인, 나아가서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악순환 되고 있음을 판단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지방대학 행정학과 의 위기 극복을 외재적 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외재적 발전전략을 흡수할 수 있는 대학의 자기혁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위에 관련 행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원인변수를 토대로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 1. 연구대상 및 도구

델파이는 적절한 예측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전문가들의 직관을 동원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미래변화 뿐만 아니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추진하거나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수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이종성, 2001: 16-17). 따라서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일은 델파이 시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대상 및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델파이조사 대상인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 30명 중 개인적 사정 등으로 응답에 참여하지 못한 6명의 교수를 제외하고 총 24명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10일에서 12월 30일에 걸쳐 델파이 설문지를 e-mail로 보냈고, 다시 회수된 e-mail을 통해 설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대학이란, 서울 소재대학을 제외한 대학으로 행정학과 신입생모집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을 의미한다.

<표 2> 델파이 조사 대상 및 구성현황

대 상		표집 인원	응답 인원	응답률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	1차 조사	30	24	80%
	2차 조사	24	24	100%

#### 2. 분석절차

본 연구에서는 목적상 행정학과 위기원인 변수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1단계 조사지는 개방형 조사지 보다는 먼저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1차로 추출된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델파이 조사지를 사용하였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폐쇄형 조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 도구는 두

2) 델파이 조사지를 작성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1단계는 개방형조사, 2단계는 구조화된 조사이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1회에서도 구조화된 조사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패널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이종성, 2001: 57).

부분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즉, 각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의 타당성 정도를 O, X를 통해 평가하도록 한 후, 각 평가영역, 요소 및 항목에 대한 비평이나 의견 또는 본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다른 중요한 평가 준거나 새로 추가할 준거가 있다면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델파이 패널들로 하여금 각 영역별로 각각의 평가항목이 위기관리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해 Likert 5점 척도(1: 전혀 필요하지 않음, 2: 필요하지 않음, 3: 보통, 4: 필요함, 5: 매우 필요함)로 평가하게 하고, 위기극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2차 설문 결과는 5점 Likert 상에 나타난 응답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기술적 통계 분석은 SPSS version 17.0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안을 영역별로 행정학문의 정체성 영역,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영역,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와의 연계 영역,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별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 3. 분석결과

#### 1)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에게 델파이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종합한 결과 최종 4개 항목, 18개의 조사항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학문의 정체성 영역은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성, 타학문과의 결합,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성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영역은 전문화·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교과내용의 현장관련 적합성 정도,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직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화,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와의 연계 영역은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인터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활용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누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은 전임교원 확보,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전공 교수들의 연대 필요성, 취업보장 장치의 마련, 재정지원책 강구, 교육정보 관리체제 구축 등에 관한 의견으로 나타났다.

&lt;표 3&gt;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세부내용
행정학문의 정체성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
	타 학문과의 결합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필요
	교과내용 과목의 현장 관련 적합성 정도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지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조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 의 연계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전임교원 확보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연대
	취업보장 장치의 마련
	재정지원책 강구
	교육정보 관리체제 구축

## 2) 제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단계 폐쇄형 조사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차 델파이 조사 도구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각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의 타당성 정도를 O, X를 통해 평가하도록 한 후, 각 평가영역, 요소 및 항목에 대한 비평이나 의견 또는 본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다른 중요한 평가 준거나 새로 추가할 준거가 있는지 제시하도록 하였다.

우선, 각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의 타당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취업보장 장치(N=24)의 마련이었으며, 지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조,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교과내용 과목의 현장 관련 적합성 정도 강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전임교원 확보, 재정지원책 강구,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연대,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및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는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라 행정학 교육방향이 재설정 될 경우 오히려 행정학의 정체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도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너무나 많은 분야에 걸쳐 전문화, 세분화된다면 행정학 방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 평가항목의 타당성 정도

영역	세부내용	응답수	
		O	X
행정학문의 정체성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	21	3
	타 학문과의 결합	17	7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	16	8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필요	14	10
	교과내용 과목의 현장 관련 적합성 정도 강화	22	2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22	2
	지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조	23	1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13	11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의 연계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20	4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18	6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23	1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19	5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전임교원 확보	20	4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19	5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연대	18	6
	취업보장 장치의 마련	24	0
	재정지원책 강구	19	5
	교육정보 관리체제 구축	15	9

다음으로, 향후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위기관리방안에 관한 델파이 조사 응답의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첫째, 행정학문의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것은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로 나타났으며, ‘타 학문과의 결합’,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학문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것은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한 타 학문과의 결합 및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행정학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적극적 활용’, ‘정부와 시민간의 정책갈등 증폭에 따른 협상전략, 지방정부간의 경쟁에 따른 혁신적 리더십 이론 등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강조되는 분야의 이론을 행정학에 접목’시킴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영역에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것은 ‘지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조’로 나타났으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교과내용 과목의 현장 관련 적합성 정도 강화’,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 영역으로의 전환 필요’,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등의 의견은 동의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산학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연계’, ‘실무·기술적인 내용으로의 대폭적인 전환’, ‘현장교육 및 사례연구 중심의 교육 강화’, ‘현직 행정공무원을 활용하는 겸임교수제 활용’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셋째,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의 연계 영역에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것은 ‘정부공

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로 나타났으며,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필요성',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등의 내용이 그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공무원시험에 행정학 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수제도 도입', '행정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수제도 도입', '학내의 공무원 양성반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넷째,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영역에서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것은 '취업보장 장치의 마련'이었으며, '전임교원 확보',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재정지원책 강구',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연대', '교육정보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이에 따른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방법 다양화', '교육시장 개방화 및 국제화 진전에 따른 대응', '지역 대학 상호간의 교수교류, 학점교류, 교차수강, 시설 공동 활용 등 동일 지역대학 간 협력체제 강화'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전체 영역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 의 연계가 가장 높은 측정값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영역	세부내용	평균	표준 편차	영역별 평균
행정학문의 정체성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성 제시 필요	4.29	.46	3.84
	타 학문과의 결합	3.75	1.33	
	대학 내 다른 전공학과와의 연계	3.50	1.25	
교육과정과 사회적 수요와의 대응성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필요	3.29	.86	3.87
	교과내용 과목의 현장 관련 적합성 정도 강화	4.33	.48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과과목의 개설 및 운영	4.33	.48	
	지역 특화 실무영역 개발 및 실무형 교육 강조	4.39	.69	
	<b>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b>	<b>3.04</b>	1.12	
공공부문의 인력수요와 행정학과 의 연계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4.58	.50	4.49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4.00	.78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4.71	.46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4.67	.76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전임교원 확보	4.54	.51	4.28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전문성 강화	4.38	.77	
	행정학 전공 교수들의 연대	3.88	.85	
	<b>취업보장 장치의 마련</b>	<b>4.83</b>	.38	
	재정지원책 강구	4.23	.85	
	교육정보 관리체제 구축	3.83	.87	
<b>전체 평균</b>				<b>4.12</b>

### 3) 분석결과의 시사점

본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4개 항목으로 구성된 18개의 문항에 대해 대부분 5점 척도의 4점 이상의 동의를 이루고 있어, 지방대학 행정학과 위기관리 필요성에 대한 높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를 반영하듯 몇 개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4.3이상의 매우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도출된 18개의 문항을 나누어 보면, 크게 정체성과 적실성·실용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동의수준을 나타낸 문항으로는 ‘취업보장 장치의 마련’, ‘정부공공기관간의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공공부문 자격증 제도의 적극적 활용 및 활성화’, ‘지방정부와 대학 및 학과간의 협력체결 필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지방대학 행정학과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학문의 정체성에 관한 노력 이전에 학생들의 취업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 마련,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과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의견은 제시되었으나 동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영역으로는 ‘국정목표의 변화에 따른 행정학 교육방향 재설정’,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으로의 전환 필요’ 등이 제시되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정운영 목표라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수정이 일어나고 있고,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한 정책목표 전환, 대중의 눈과 귀를 자극하는 정책목표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러한 국정목표의 변화에 발맞추어 행정학의 교육방향이 재설정될 경우 오히려 행정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화, 세분화된 전공영역도 일정부분(범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나 너무나 많은 분야에 걸쳐 전문화, 세분화된다면 전문한 내용과 같이 행정학 방향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할 수 있다.

#### IV. 실증분석을 통한 위기대응방안

지금까지 지방대학 행정학과에 대한 위기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다분히 중층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의 논리도 그 만큼 다각적, 입체적 접근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델파이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된 행정학과 위기 극복방안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행정학의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의 전환,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타 학문과의 결합, 취업보장 장치의 강화, 환경적 차원 등이다.

##### 1.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서 전환

현 행정학 교육의 주류는 실무형 교육이라기보다 아직도 실용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 결과 행정학에 대한 비유용성의 정도는 아직도 크다고 주장하는 인식체계가 팽배되어 있다. 행정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지방대학 행정학과 전공자들의 취업 및 진로모색의 관점에서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용성 있는 행정학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실무형 교과과정 편성, 인턴십 제도의 도입 및 새로운 발굴, 현직공무원을 활용한 겸임교수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다.

### 1) 실무형 교과과정의 도입

행정학에 대한 유용성은 민간분문은 물론 현직 공직에서조차도 회의적이다. 즉, 행정학 교과목 내용의 대부분이 이론이나 제도 소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용적이며 기술적인 분야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sup>3)</sup> 특히 행정학과 졸업생들의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기존의 공직자나 다른 사회직장인이 가진 이러한 인식은 이들 졸업자들의 사회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행정학의 교과목은 현장 적응적이며, 기술적인 내용으로의 대폭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송병주·정원식, 2005: 3). 즉, 피상적 원칙이나 이론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앞으로 행정학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김명환, 2011: 376). 따라서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실천적 교육, 현장 중심적 교육, 사례연구 중심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실제 행정현상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학의 교육과정을 이론과정, 실무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론과정은 행정학 기초이론, 인사·재무·조직·정책 등의 주요이론 중심으로 편성·강의하고, 실무과정은 문제해결 중심, 현장 적응력 중심의 실무기술을 학습하는 것으로 이론에서 논의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기술을 습득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무적 기술습득도 크게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행정이론 중 특히 실무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한정해서 관련 실무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행정실무기술 과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실무기술만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이다. 전문적인 실무교육을 위해서는 후자가 좋으나 교수법상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전자의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실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자격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행정관리사 자격증제도를 이러한 실무교육과 연계시킨다면 실무교육의

3) 조경호(2010a: 358, 2010b: 17)도 현행 행정학 교과체계의 문제점으로 행정학 실무 교육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행정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실무적 지식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의 행정학 교과내용은 행정학원론 등 기초과목, 행정관리 과목, 정책과목, 분야별 행정과목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대다수 대학들의 행정학 교과내용이 거의 이론중심의 과목이라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유용성도 높아지고, 또한 자격증의 품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실무교과목 분야는 이론과정을 통해 습득한 인사·재무·정책을 포함하여 기획 분야 등 공직진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행정학과 관련 자격증 제도 개발 및 활용

행정학 전공자들에 대해 행정학 전공에 대한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능력을 적절히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이유는 대학별로 교수별 강의 내용과 평가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능력이 대학별로, 담당 교수의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난다. 행정관리사, 정책분석평가사, 갈등관리사 등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동의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능력 측정을 객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자격증 제도의 장점으로서, 행정고시 및 공무원 채용 시험의 단점보완(특정과목에 대한 일시적 측정상의 문제 보완), 행정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육성, 신규공무원 교육 수요 대체<sup>4)</sup>, 공무원들의 재취업 기회 부여<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자격증의 부여방식은 실무기술 과정의 학점을 이수했을 때 일괄 부여하는 방식과 과정이수와 함께 소정의 시험과정을 거쳐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실무능력 평가의 객관화와 자격증의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후자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제도와 연계시킬 경우 보다 유리할 수 있어 행정학전공의 선호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인턴십 제도의 도입 및 새로운 발굴

인턴십 제도는 대학과 정부공공기관 간의 연계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인턴십을 고려한 학과운영 대학도 있으며, 현장에서 학생들의 실무경험을 익히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인식범위를 넓히며, 공직진출에 대한 전공자의 판단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는 해당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간의 일치된 이해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며, 실무과정 이수 외에 별도의 자격증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무원시험에서 어떠한 결과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적용상의 한계가 노출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이병량(2010: 176)도 인턴십 제도가 공무원 임용과 연결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칙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턴십 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실무과정

4) 현행 신규 채용 공무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예산 지출도 적지 않다. 행정관리사 제도는 이런 교육 수료를 각급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5) 공무원직을 떠났던 사람들은 단순한 근무 경력만 가지고는 다시 공무원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이 어느 순간에 행정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후에 재취업이 가능, 행정학 관련 자격증은 기존 공무원들의 공무원 근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장치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의 수준, 자격증의 품질보증 등에도 객관화 측정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 간의 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운영결과에 대한 실질적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유인체계가 없으시 이 제도의 도입은 사실상 각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 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이 도와 시, 군의 지방 정부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유인책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2.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행정학은 일반 행정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른 학문 간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학 부전공과 복수전공의 적극적 활용, 이를 위해 다양한 세부전공과 관심분야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방향은 광범위한 일반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공통영역과 이것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 수용을 위한 세부적인 전공영역을 구분하여 이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 1)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양분야로의 전공영역 확장

지식기반시대, 지식경제시대, 그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조에 부응한 새로운 분야나 개념에 대한 행정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강조되는 분야의 개념이나 이론을 행정학에 접목시킴으로써 행정학의 사회적 적응력, 대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 간의 경쟁은 물론 지방정부간의 경쟁에 따른 혁신적 리더십론이나 정부와 시민간의 정책갈등 증폭에 따른 협상전략 및 기법에 대한 관심 등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학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높이고 보다 쉽게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교과목의 확장도 필요하다. 최근 지방정부의 빈번한 축제행사와 관련된 문화예술행정 분야와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sup>6)</sup>

### 2) 전문화, 세분화된 행정전공으로의 전환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델파이 분석결과를 보면, 다른 세부영역에 비해 상대적 측정값이 낮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전문화와 세분화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였는가의 차이로 기인된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여기서 의미하는 전문화와 세분화는 특화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sup>7)</sup> 행정이론과 이것이 제도화 된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분야별 내용(substance)을 연구의 영

6) 문화이벤트론, 문화정책론, 문화예술행정론, 문화산업론 등의 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역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행정학이 관료제의 조직과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을 핵심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왔다고 한다면, 미래의 행정학은 각 행정과 정책영역별 내용을 더욱 직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행정학이 관료제와 조직관리,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행정영역별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행정학의 연구 활동에 이러한 내용을 심화시키기 위한 전제는 바로 '분화'이다. 과정에 대한 연구를 내용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분화가 필수적인 것이다. 연구와 교육활동이 세분화되고, 이것이 대학과 같은 지적 제도에 분화되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행정학과와 특성화 차원에서 과거의 일반 행정학으로 설치된 학부와 학과를 보다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또한 실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존의 일반 행정학을 행정이론 전공, 행정실무 전공, 제도개선 전공 등의 몇 개의 특성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은 기존에 존재하는 일반 행정학과를 경찰행정, 소방행정, 세무행정, 의료행정 등 분야별로 나누어 존립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이미 일부대학에서 활용하고 있기는 하다. 특히 행정학의 신입생 충원이 아주 저조한 대학에서는 행정학과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행정학과와 같은 최근 수요가 높은 학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느 방안을 선택할 것인가는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대안은 보다 신입생의 충원에 맞추는 대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높다할 것이다. 현재 비수도권지역 대학의 행정학과는 지방자치 시대를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특화하고, 전문행정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출할 방안을 탐색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 3)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

실제 지방행정의 실무 운영상 드러나는 많은 문제와 난관을 실무자들은 이론가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 기초자료의 축적이나 이론적 기반이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을 교육하고 연구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지역 내에서 실제로 부딪치고 해당지역에만 독특한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갈등조정, 개발과 환경문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 등이다. 행정학의 영역도 지역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교과 과목들이 개발되고 강의에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방행정 활동자체가 종합행정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연구, 지역 내 도시문제, 개발과 환경문제, 갈등해결과 협상 등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대학이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목적을 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행정학 관련 분야에 지역사회 안전(경찰행정),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와 NGO, 지역사회 내 정부의 재정 및 회계 등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윤우

7)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곤, 1998: 12).

### 3. 타 학문과의 결합

행정학은 편협적이고 분열증적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는 Waldo(1980)가 말하는 처방적,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Waldo(1980)는 행정학을 의학에 비유하여 신체의 건강을 위한 모든 지식을 의학에서 필요하듯이 행정학도 행정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행정학의 모학문이라 할 수 있는 정치학, 법학, 의붓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경영학뿐 아니라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여타의 학문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김홍희, 2011: 243).<sup>8)</sup> 이렇듯 행정학의 성격에서 행정학이 다른 전공과 결합하게 되면 많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학+경영학, 행정학+법학, 행정학+정치학, 행정학+경제학은 매우 유용한 결합이다. 세 가지 전공을 결합하는 것도 선진국에선 그리 낯설지 않는데 즉, 행정학+법학+정치학, 행정학+경제학+경영학, 행정학+경제학+정치학 등의 결합이 바로 그것이다. 많은 대학에서 학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만약 인문사회계열이 하나의 학부로 통합된다면 행정학은 경영학이나 경제학, 아니면 국제 통상학 등의 인기에 밀려 지원학생이 격감하는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행정학이 다른 학문과의 결합을 시도하면 행정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 4. 취업보장 장치의 강화

취업보장 장치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행정학전공자에 대한 가산점수제도의 신설이며, 둘째는 공무원 양성반 운영 등 적극적 취업진로 방안모색 등이다.

#### 1) 가산점수제의 활용

각 지방대학에 소재하는 행정학전공 이수자들에게 9급 공무원 시험 시 일정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sup>9)</sup> 총 점수의 1% 정도를 상징적으로 부여하여 행정학 전공자들의 공직진출을 유도하고 그들의 행정학 지식을 실질적으로 공직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무원 시험 제도는 단순히 필요 과목만을 치르고 그 점수로 공무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행정학보다 타 학과 전공자의 합격비율이 높은

8) 이병량도 그의 논문(2010: 174)에서 행정학은 거시론적 이론을 다루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뒤지고, 미시적 이론을 다루는 경영학이나 심리학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학문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9) 이는 제도상의 문제로 형평성 차원에서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먼저 밝혀준다. 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지니고 있는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발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이병량, 2010: 180).

편이며, 이는 행정학의 유용성이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산점제도의 도입은 행정학 전공자들의 지식, 기술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며, 상대적으로 행정학과의 경쟁력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면에서 권장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입에는 행정학전공자들의 실무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거나, 어느 경우 행정학 이수자의 자격증 취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등 행정학 이수자가 가진 장점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전술한 방안과 달리 9급 공무원시험에서 행정학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도입방안이다. 행정학 관련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1%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행정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확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행정학전공의 유용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능력 있는, 즉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사람의 공직진출을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에서는 행정학 자격증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

## 2) 학내의 공무원 취업반·양성반 확대운영

이미 지방대학의 경우 공무원 취업반, 양성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학교의 경우 공무원관련 무료 강좌를 개설하여 수강하게 하고 있으며, 취업관련 학원 강좌를 수강할 시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학교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학교의 특성이나 재정형편에 따라 이의 제도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환경적 차원

환경적 차원은 지방대학 행정학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지방대학 자체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지방대학은 학생확보 대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 적정인구의 감소로 현재 고3 학생의 수는 앞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하여야 하며 대학들은 평생교육차원에서 대학을 이미 졸업한 시민들의 재교육이나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는 지식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지방대학들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 지역대학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각 대학들이 중복된 분야의 입학정원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학 간에 과잉경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생유치를 위한 과잉경쟁으로 대학의 위상이 오히려 하락되어 지방대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대학 상호간에 교수교류, 학점교류, 학생교류, 교차수강, 시설 공동 활용,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각 대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대학들이 해외 저명 학자의 공동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면 초빙예산을 절감하고,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내의 학과

간 M&A 또는 대학간의 M&A를 통하여 특성화 즉 각 대학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하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국립대학 간 또는 동일성격의 사립대학들 간에 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지역대학과 지역의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지역 내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필요한 연구시설을 대학교 내에 위치하게 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소도 같은 분야의 대학 전공학과와 밀착하여 연구를 추진한다면 연구의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의 공급에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지방대학 행정과의 경쟁력 저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시대에 따른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잠정적인 방안으로 넘기는 것은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쟁력 저하를 더욱 심화시켜 행정학과 자체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대학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 대학별 노력은 물론 행정학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근간은 역시 행정학 교수나 학자들의 역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대학 행정학과 교수들의 정확한 문제인식을 통해서 무엇이 각 학교 별 행정학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적인 급선무이다. 이와 더불어 학회차원에서는 행정학의 유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반인식의 제고, 행정학전공자들의 취업활로의 개척과 정학의 제도적, 정책적인 방안마련에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행정학을 다른 학문과 구별하는 유일한 특징은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Ventriss, 1991: 10). NGO와 시민공동체, 국제기구 및 행정, 문화와 여가정책, 삶의 질, 정보기술의 활용과 전자정부 등의 주제는 향후 행정학의 연구소재 혹은 교과목으로 수용되어야 할 분야들이다. 행정학과 역시 다양한 연구소재와 대상, 초점을 수용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방대학 문제를 경제논리로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은 인성과 능력, 그리고 자질과 개성을 계발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며 상대적 우열을 가리고 최후의 승자를 가림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들이 지방에 있든 수도권에 위치하든 생존과 경쟁의 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경쟁이라는 것은 그 시작에 있어 적어도 여건과 조건이 보편적·상식적 판단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이미 생존과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기 이전부터 고착화되어 있다는 자명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교육에 있어 경제 논리가 더 이상 생존 경쟁으로 직결되는 오류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3. OECD 교육지표.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9. 취업통계분석자료집.
- 김명환. 2011. 실용주의 행정학의 정립과 유용성에 대한 탐색. 한국행정학보. 45(2): 371-395.
- 김홍희. 2011. 한국 행정학 정체성 위기의 큰 질문들.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4): 237-261.
- 노승용. 2006. 델파이 기법: 전문적 통찰로 미래예측하기. 국토연구원. 통권 299호. 53-62.
- 박종관 · 김상묵. 2009. 행정학전공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종민. 2006. 한국행정학 50년: 한국행정이론을 위한 비판적 성찰.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박종민 · 윤건수 · 김현준. 2011. 한국행정학의 방향: 교육, 연구 및 제도. 서울: 박영사.
- 박준하. 2010. 공무원 시험 과목의 변천과 행정학 교육의 발전 방향.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519-530.
- 백완기. 1978. 한국행정학의 학문성 정립문제: 과학주의의 입장에서. 한국정치학회보. 12: 73-92.
- 송병주 · 정원식. 2005. 행정학과 4년제 대학 교과과정운영모형: 방향모색과 대안의 모색. 중앙교육수협 자료집.
- 송재복. 2005. 지방대학 행정학과 경쟁력 확보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염재호 · 이종수. 2001. 한국행정학의 이론성과 실천성.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집.
- 유희숙. 2005. 전문대학 행정학 관련학과의 실태분석.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윤건수. 2011. 한국행정학의 영역 찾기. 한국행정학보. 45(1): 1-22.
- 윤우곤. 1998. 행정과 경영의 비교 연구: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한국행정학보. 32(4): 1-18.
- 이만희. 2003. 고등교육기관, 기능적 역할 분담만이 살길이다. 교육개발. 30(2): 54-60.
- 이병량. 2010. 행정학의 위기와 행정학 교육: 한국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에 관하여. 행정논총. 48(2): 169-188.
- 이종성. 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이종수. 2002. 행정학과 의 사회대응성 제고방안.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81-389.
- 이현청. 2003. 교육개방과 대학과잉시대의 학국대학, 어떻게 변해야 하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정용덕. 1996. 한국 행정학 발전의 동인. 한국행정학보. 38(4): 1-17.
- 정용덕. 2000. 21세기 한국의 국정관리 모형.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용덕. 2001.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 조경호. 2010a. 행정학 교육 발전방향: 교과과정 개편 논의의 쟁점과 방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0(2): 345-362.
- 조경호. 2010b. 행정학과 학부 교과과정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집.

최병태 · 서승교 · 박영순 · 이택엽. 2000. 학과평가 및 교원업적평가 운영방안. 대구산업정보대학 논문집. 14(2): 391-40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0. 전문대학평가참고자료.

한국행정학회. 2010. 행정학 · 행정학과 위기관리특별위원회 백서. 서울: 한국행정학회.

취업관련자료. <http://www.yonhapnews.co.kr>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

Dewey, J. 1954. *The Public and its Problems*. Chicago: Swallow Press.

Frederickson, H. G. 1971. Toward a New Public Administration, in Frank Marini(ed.). *Toward New Public Administration: The Minnowbrook Perspective*. Chandler Publishing Company.

Frederickson, H. G. 1997. *The Spirit of Public Administr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Golembiewski, R. 1977. *Public Administration as a Developing Discipline, Part 1. Perspectives on Past and Present*. New York: Marcel Dekker.

Harvey, L. 2000. New Rea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Tertiary Education and Management*. 6(1): 3-17.

Selden, S. A., Brewer, G. A. & Brudney, J. L. 1999. Reconciling Competing Values in Public Administration: Understanding the Administrative Role Concept. *Administration and Society*. 31(2): 171-204.

Ventriss, C. 1991. Contemporary Issue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A Search for an Educational Focu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1): 4-14.

---

**張哲榮**: 영남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전자정부 행정서비스의 고객지향성 평가, 2005), 현재 대구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정보정책, 공기업 분야이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경찰행정연구위원장, 대한지방자치학회 편집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행정 서비스 수요변화를 통한 지방정부 공무원 규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201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2010), “지역경찰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개발”(2009) 등이 있고, 저서로는 SPSS 사회현상 조사분석 및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알기 쉬운 통계기법의 활용(2011, 도서출판 대명), 경찰조직관리론(2009, 형설출판사) 등이 있다(heyfor1@dufs.ac.kr).

**朴炯堉**: 동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의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인적재난의 사전대비를 중심으로, 1996), 현재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찰행정, 위기관리, 민간경비 분야이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한국민간경비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현장경찰관의 근무환경과 개선방안”(2012), “한국 민간경비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2011), “음주운전 유발요인과 대응방안”(2011) 등이 있고, 저서로는 경찰학개론(2012, 우공출판사), 국가위기관리론(2010, 법문사) 등이 있다(police@dhu.ac.kr).

**金光柱:** The University of Georgia에서 정치학박사(행정학 전공)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Political Economy of OSHA Regulation: A Pooled Time Series Analysis, 1991), 현재 경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부혁신, 성과평가, 행정관리 분야이며, 한국정부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학회에 고문을 맡아 활동 중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대구광역시정 업무평가에서 협업모색을 위한 탐색적 연구”(201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08) 등이 있고, 저서로는 「신행정관리론」(2009) 등이 있다(kjkim@kiu.ac.kr).

투 고 일: 2012년 07월 03일

수 정 일: 2012년 07월 20일

게재확정일: 2012년 07월 27일

## A Delphi Analysis to Overcome the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s in Local Universities

Cheol Yeung Jang, Dong Kyun Park, Kwang Ju Kim

The decreasing competitiveness of local universit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s is not a temporary phenomenon but a changing trend of the 21st century society. In the future, the trend jeopardizes the exist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s, so the departments and the associations of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find alternativ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s in local universiti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signed a delphi study on the role of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as well as the associations' efforts to increase the ut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promote citizens' perception and develop institutional and policy arrangements related to job searching opportunity for college graduates with public administration degrees. The study concludes that public administration education should not be sacrificed by economic logics but dealt as a public good wherever the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s are located.

**Key words:** local university, jeopardizes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convergence, local quota system for the talented